

# 사회적 건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김주연, 김계하\*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Social Health in Korea

Ju-Yen Kim, Kye-Ha Kim\*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 건강을 주제로 시행된 총 25편의 국내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간호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문헌 검색에 사용한 검색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국회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한국학술정보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등이었다. 분류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의료복지 분야에서 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구 방법은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연구대상은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았고, 간호 분야에서도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간호 분야에서의 사회적 건강의 개념과 관련된 하위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 주장, 자기조절, 협동심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건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학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compare and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related to social health in Korea,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lated to social health in the domestic nursing field. Between 2001 and 2021, 25 studies were selected applying keywords such as registered social health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from the Academic Information Service(Riss),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Statistical analyses were achieved using the EXCEL program.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rtion of studies conducted in the field of medical welfare was the highest, and most researches were survey-based studies. Several studies focused on the elderly as subjects of their research. In the field of nursing, research related to social health has been steadily conducted. In these studies, the sub-factors related to the concept of social health were identified as social support and empathy, argument, self-regulation, and cooperation. Taken together, our findings indicate a need to conduct a study on the nursing aspect to clarify the concept of social health.

**Keywords** : Social Health, Literature Review, Research, Trends, Analysi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이란 내·외적 환경에 대해 적응하는 역동적 상태

로 그 개념의 정립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고 변화해 왔다[1]. 건강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사회적 건강은 건강 상태에 변화를 주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문화와 생활이

\*Corresponding Author : Kye-Ha Kim(Chosun Univ.)

email: kyeha@chosun.ac.kr

Received April 19, 2022

Accepted July 7, 2022

Revised May 30, 2022

Published July 31, 2022

반영되고 이는 건강의 정도를 나타내는 한 척도가 된다 [2,3]. 이미 과거 오래전부터 국제기구인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보편적 건강성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신체·정신적 영역과 더불어 사회적 영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 가지 영역이 고르게 충족되는 총체적인 상태가 건강 유지를 위한 올바른 요건이라 하였다[4].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의 대유행 이전과 이후의 건강에 대한 개념도 단순히 질병의 양적인 처치나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환경에 관한 관심과 논의를 더욱 면밀하게 하여, 질병의 위협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확장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간호학에서는 환경을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어 건강 지킴이로서 대상자와 건강과 관련된 그들의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5,6].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건강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따르는 융화와 적응을 중심으로 사회적 건강에 대해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건강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적 통합과 참여, 지원, 네트워크 등 단편적인 사회적 인 관계의 양상으로 제시하였다[7].

이후 시행된 다양한 연구들[8-11]에서는 사회적 건강 상태가 개인의 건강 행동과 그들의 사회 환경적 조건에서 형성이 되며, 이러한 조건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건강성은 건강 행동과 사회 환경적 조건의 정도, 밀도, 크기, 결속성, 계속성, 기능성, 상호성 등에 의해 결정이 되고,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건강의 건강성을 개인과 관계되는 타인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정도로 정의하는 것으로 사회적 건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건강에 대한 다각적 방향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은 1974년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마크 라론드(Marc Lalonde)에 의해 발표된 Lalonde Report (19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건강 및 사망에 영향을 주는 건강 장의 모형을 인체 생리(human biology), 의료제도(systems of health care organization), 생활 습관(life style), 심리·사회적, 물리적 요인과 관계된 환경(environment)의 네 가지 영역으로 명시하고,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의 네 가지 요인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12].

이 같은 흐름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개인과 집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요인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2008년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사회적 건강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건강 문제와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13,14].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과거에 수행된 연구들[15,16]에서 사회적 건강은 개인의 건강과 관계된 환경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가 삶을 유지하는 동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의 사회적 건강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기준과 범위가 학문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 대한 구분과 개개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건강으로 이론을 정의하고 시행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어, 관련된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발표된 논문의 다수가 개념의 속성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된 자료들이며[17-19], 이러한 연구의 결과인 사회적 건강의 개념들을 간호학적으로 이론화하여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건강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에 대한 소개가 거의 부족한 현재의 상태에서 간호학적인 연구 본래의 취지와 의미에 맞는 실천적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모호한 명제의 사용은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학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건강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체계화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먼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류하여 논문의 정리와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학문 간에 개념과 차이를 정리하는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추후의 체계화된 탐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실시된 사회적 건강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수행될 연구의 방향과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간호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

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게재 연도에 따른 학술지 분야를 분류한다.
- 2) 게재 연도에 따른 연구 방법을 파악한다.
- 3) 게재 연도에 따른 연구대상을 파악한다.
- 4) 게재 연도에 따른 전공 분야를 파악한다.
- 5) 전공 분야에 따른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회적 건강을 주제로 실시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사회적 건강을 주제로 발표된 총 2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검색에 사용한 검색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누리 미디어 (DBpia), 한국학술정보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구글 학술 검색(Google Scholar) 등이었다. 사회적 건강, 심리·사회적 건강의 단어를 주요어로 검색하였으며, 불리언 검색(Boolean Search) 'AND'로 조합하여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된 논문 전수에 대해 게재연도, 출처, 연구대상, 연구 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전공별로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으나 사회적 건강을 주제로 시행된 간호학 분야의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아 보건의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작성된 논문도 사회적 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연구는 대상에 포함하여 학제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색된 문헌의 리스트는 서지 반출프로그램(Zotero)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학위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로 분석하였고, 원문 수집이 불가능한 논문과 사회적 건강이라는 단어를 포함되었으나 사회적 건강과 무관한 내용의 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제외하였다.

### 2.3 자료 분석 절차 및 기준

#### 1) 분석 절차

본 연구를 위한 문헌들의 도출과정은 Fig. 1과 같다. 검색 결과 NDSL 24개, Google Scholar 19개, DBpia, KISS, RISS 18개, NAL 13개로 총 110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복문헌, 학위·학술지 논문이 아닌 경우, 원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학술대회 발표 자료인 경우를 제외한 총 25편을 최종 분석대상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 기준

최종 선정된 논문의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게재연도별 학술지 동향

연구의 수행 시기를 5년 단위로 구분하였고, 게재연도를 중심으로 학술지 분야를 분류하였다. 학술지 분야는 의료·복지, 교육, 디지털·미디어, 체육, 기타로 구분하였다.

##### (2) 연구 방법별 동향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연구, 복합 연구(2가지 이상 유형), 질적 연구, 실험연구, 기타(문헌, 도구 개발 등)로 분류하였다.

##### (3) 연구대상별 동향

학령기(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년기, 노년기, 취약계층, 기타로 분류하였다.

##### (4) 전공 분야별 동향

전공 분야별 의료, 사회복지, 교육, 체육, 기타로 분류하였다.

(5) 전공 분야에 따른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주요 개념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초기 분류에 MS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S Excel 프로그램의 추가기능 (MS Excel add in)을 이용하여 분석 기준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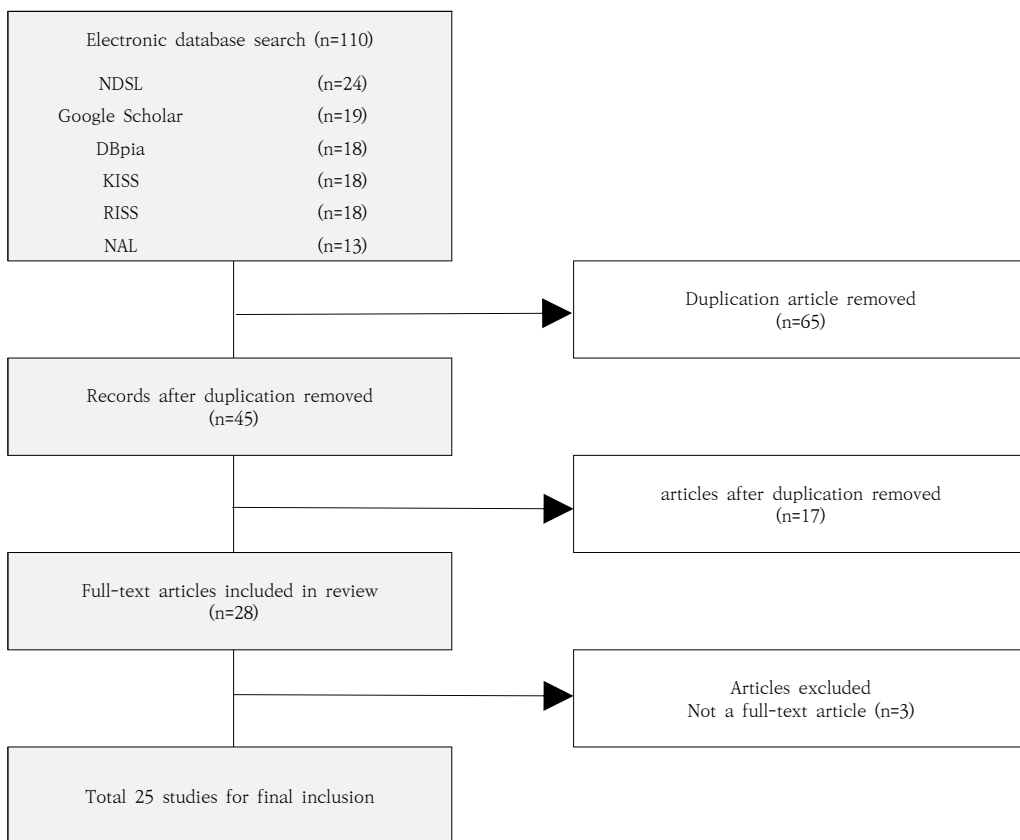


Fig. 1. Floe diagram of study selection process

## 2.5 연구의 제한점

문헌 선정을 위해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출판된 논문 전수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3. 연구결과

### 3.1 사회적 건강 개념을 다룬 연구의 학술지 분야 분포

사회적 건강을 연구한 논문의 연도별 학술지 분야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의료복지와 기타 영역이 7편 씩으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미디어 5편, 체육 분야 4편, 교육 영역 2편이 게재되었다.

### 3.2 사회적 건강 개념을 다룬 연구의 연구 방법 분포

사회적 건강의 연도별 연구 설계 분류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실시된 방법은 조사연구가 19편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연구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실험연구와 질적 연구는 2016년부터 파악되기 시작하였으며, 도구 개발, 학위논문 등의 기타 연구도 같은 시기에 활발하게 수행이 되었다.

### 3.3 사회적 건강 개념을 다룬 연구의 연구대상 현황

연도별로 선정된 연구대상을 분석해 보면 <Table 3>과 같다.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로 분류한 생애 주기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5편으로 조사되었다.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초등학생 1편, 고등학생 1편 대학생 1편으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성인 대상연구는 4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된 논문은 2편으로 파악되었다.

### 3.4 사회적 건강 개념을 다룬 연구의 전공 분야 현황

사회적 건강을 연구한 연도별 전공 분야의 현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간호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편으로 사회

Table 1. Distribution of academic journals by year of publication

Year/field	Medical and welfare	Education	Digital and media	Physical education	Etc.	Total
2011-2015	3(33)	1(11)	2(22)	2(22)	1(11)	9
2016-2021	4(25)	1(6)	3(19)	2(13)	6(38)	16
Total	7(28)	2(8)	5(20)	4(16)	7(28)	25

Table 2. Distribution of research methods by year

Year/method	Experimental	Qualitative	Research	Composit (More than 2 methods)	Etc.	Total
2011-2015			9			9
2016-2021	2(13)	1(6)	10(63)		3(19)	16
Total	2(8)	1(4)	19(76)		3(12)	25

Table 3. Current status of research subjects by year

Year/subjects	School age				Adult	Elders	Vulnerable	Etc.	Total
	Elementary	Middle	High	University					
2011-2015			1(11)	3(33)	1(11)	3(33)		1(11)	9
2016-2021	1(6)			1(6)	3(19)	5(31)	2(13)	4(25)	16
Total	1(4)		1(4)	4(16)	4(16)	8(32)	2(8)	5(20)	25

Table 4. Current status of major field by year

Year/major	Nursing	Social welfare	Physical education	Etc.	Total
2011-2015	5(56)	1(11)	2(22)	1(11)	9
2016-2021	4(25)	5(31)	4(25)	3(19)	16
Total	9(36)	6(24)	6(24)	4(16)	25

Table 5. Main research concepts of social health, according to major field

Main research concepts	Nursing	Social welfare	Physical education	Etc.	Total
1. Family/friends/school/society			1		1(4)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family conflict/social participation satisfaction		1			1(4)
3. Empathy/argument/self-regulation/cooperation	2				2(8)
4. Strengthe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1(4)
5. Help provider existence and nonexistence/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discrimination experiences		1			1(4)
6. Community service/to respect other people's rights/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1(4)
7. Social relationship/interpersonal competencies	1				1(4)
8. Social support	3			1	4(16)
9. Determinants of social health	1	1			2(8)
10. Social isolation	1				1(4)
11. Social role performance/self-confidence				1	1(4)
12. Social capital/informal networks/normality and reciprocity		1			1(4)
13. Social participation/social network		1		1	2(8)
14. Character/personality			2		2(8)
15. Achievement motivation/socialization/self-esteem/morality			1		1(4)
16. Income/education/job/asset/spouse etc.		1			1(4)
17. Concession/friendship/good habits/solidarity/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1(4)
18. Perceived severity/perceived vulnerability/perceived benefit/social norms				1	1(4)
Total	9(36)	7(28)	5(20)	4(16)	25

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 후반기에는 1편으로 진행된 논문이 거의 없었으나, 2016년부터 2021년에는 5편으로 증가하였다. 체육 분야 6편, 기타 4편으로 분류되었다.

### 3.5 전공 분야에 따른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주요 개념

분석대상 25편의 문헌에서 전공 분야에 따라 사회적 건강과 관련하여 연구된 개념들은 <Table 5>와 같다. 그리고, 전공에 구별 없이 연구에 사용된 핵심 개념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Fig. 2). 간호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논문에서 사용된 변수는 사회적 지지 3편, 공감/주장성/자기조절/협동성 2편, 대인관계 강화, 사회적 관계/대인관계 역량,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 사회적 고립감 1편씩이 파악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가족 갈등/사회참여 만족도, 도움 제공자 유무/사회적 활동 참여 여부/차별 경험, 사회봉사/타인 존중/대인관계,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 사회적 자본/비공식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 사회참여/사회적 관계망, 소득/교육 수준/직업/자산/배우자 등을 개념화하여 각 1편씩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분야에서는 성격/인성 2편, 가족/친구/학교/사회, 성취동기/사회성/자아존중감/도덕성, 양보심/우정/좋은 습관/단결력/대인관계를 개념으로 구체화한 논문이 1편씩이었다.

기타 분류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변수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역할 수행/자기 신뢰, 사회참여/사회적 관계망,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이익, 사회규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Word cloud of research concepts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사회적 건강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도별 게재된 학술지, 연구 방법, 연구대상, 전공 분야에 따라 사용된 주요 개념을 확인하여 추후 간호학과 관련한 사회적 건강의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학술지별로 게재된 사회적 건강에 관한 논문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사회적 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의료·복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는 위의 분야들의 학문적 성격이 주로 개인의 건강과 안녕 유지를 목표로 하므로, 타 학문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에 기초하여 진행된 연구가 수적으로 많아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를 실증적 자료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류된 논문과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DB)에서 찾을 수 있는 목록만을 살펴보아도 사회적 건강으로 개념을 정리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으며, 대부분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건강에 대한 개념의 체계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사회적 건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사회적 건강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많았고, 질적 연구의 비율은 낮았다. 양적 연구 중에서도 실험연구의 수행률은 낮았으며, 조사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 역시 조사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건강이 단일화된 하나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의 외부와 내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1,20]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하부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조사연구 위주로 수행된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동향 연구나 문헌고찰 등 사회적 건강에 관한 분석적 연구는 타 학문이나 간호학 분야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의 시행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이며 선행된 연구의 부족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논문의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건강에 대한 범주를 규명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세 번째,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가장 많았고, 학령기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대상으로 실시된 논문들은 생애 주기에 따른 과업과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영역과 관련성 및 영향 요인을 찾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개인의 신체·정신의 건강은 사회적 환경인 세대별, 직업군, 재무 상태, 지역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21]. 따라서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건강성을 위한 예측지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근거로 각 개인에 알맞은 환경적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구체적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Pandemic) 시대에 일반 직장인과 직장인이지만 보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는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차원이 아닌 각 대상에게 맞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함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네 번째, 사회적 건강에 관한 연구를 활용한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학과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빚어진 다양한 사회문제들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간호학 분야에서도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과 주제를 가진 학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은 사회적 건강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나,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실이므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학적 특성을 강조한 관심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 시 사회적 건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명확한 학문적 경계는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분류된 경계는 대상자들에게 의미 있는 간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22], 간호학적 개념의 정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인정될만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공 분야에 따라 사용된 사회적 건강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구분 없이 사회적 건강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개념을 분석하였는데, 간호학 분야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 주장성, 자기조절, 협동성을 주요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었

다. 현재까지 수행된 간호학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회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수정·보완하거나 의미가 통하는 유사 개념을 측정하는 등 그 조작화된 적용이 모호하므로[23,24] 이상에서 조사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간호학적 측면의 요소가 반영된 도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필요할 것이 요구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사회적 건강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간호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의료·복지 영역에서 수행된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조사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간호학 분야에서도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자주 사용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은 사회적 지지와 공감, 주장, 자기조절, 협동심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적으로 타당한 사회적 건강에 관한 개념화를 위하여 조금 더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구체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D. S. Lee, H. G. Nam, H. Lee,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regional ·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health level: Focusing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percepti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32, No.4, pp.41-52, 2019.  
DOI: <http://dx.doi.org/http://dx.doi.org/10.36700/KRUMA>
- [2] E. H. Kim, "The logical and critical implications of the complementary concept of 'healthy' or 'sick'",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96, No.2, pp.61-80, 2019.  
DOI: <https://doi.org/10.2433/jnkpa.2019.04.96.61>
- [3] L. Mertens, D. V. Dyck & B. Deforche, et. al, "Individual,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changes in walking and cycling for transport among older adults: A longitudinal study", *Health & Place*, Vol.55, pp.120-127, 2019.  
DOI: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8.12.001>
- [4]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stitution of the World

- Health Organization: Principles, 1948, Available From: [www.who.int/about/mission/en](http://www.who.int/about/mission/en), (accessed Jun. 1, 2022)
- [5] N. Y. Yang, H. K. Kim, "Lived experiences of environmental health behavior among pregnant women: A phenomenological stud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33, No.2, pp.114-124, 2021. DOI: <https://doi.org/10.7475/kjan.2021.33.2.114>
- [6] S. J. Chung, M. H. Seong, J. Y. Park, "Nurses' experience in COVID-19 patient care",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8, No.2, pp.142-153, 2022.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22.28.2.142>
- [7]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Ottawa, Canada, 1986, Available From: [www.who.int/about/mission/en](http://www.who.int/about/mission/en), (accessed Jun. 1, 2022)
- [8] T. R. Owen, "Student and employee wellness in higher education: A literature review", Research report, U.S.A, ERIC, pp.1-39, 2002. Available From: <https://eric.ed.gov/?id=ED462051>
- [9] Y. S. Park, "Study on influence of aged social well-being on satisfaction with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8, pp.326-335,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8.326>
- [10] B. J. Kim, H. S. Hyun, "Associations between individual,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s and walking behavior of adults in rural communiti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5, No.2, pp.41-51, 2021.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21.15.2.041>
- [11] Y. M. Park, S. M. Park, "Analysis of relationship of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eaching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 pp.477-484,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477>
- [12] M. Lalonde.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 A Working Document. Research report (No: H31-1374), Ottawa, Canada, pp.1-73. 1974. Available From : [The Lalonde Report was published in 1974](http://www.who.int/iris/bitstream/10665) (accessed Jun. 1, 2022)
- [13] World Health Organization,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08, Available From: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 (accessed Jun. 1, 2022)
- [14] Y. L. Kim, H. K. Lee, H. Y. Lee, M. K. Lee, S. K. Kim, et al.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2018~202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32, No.4, pp.430-444, 2021.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21.32.4.430>
- [15] L. Zhang, S. Zhou. M. P. Kwa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acts of objective versus subjective neighborhood environment on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Health & Place*, Vol.59, 2019. DOI: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9.102170>
- [16] R. F. Renger, S. J. Midyett, F. G. Soto Mas, T. E. Erin, H. M. McDermott, et. al, "Optimal living profile: An inventory to assess health and wellnes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Vol.24, No.6, pp.403-412, 2020. DOI: <https://doi.org/10.5993/AJHB.24.6.1>
- [17] E. G. Kim, S. K. Park,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sychosocial health of adolescents with chronic illness on quality of life",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23, No.1, pp.56-65, 2019. DOI: <https://doi.org/10.21896/jksmch.2019.23.1.56>
- [18] Y. J. Hong, D. H. Lim, "Effects of yoga(asana) practice programs on anxiety, fatigue symptoms and social health in pregnant wome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8, No.3, pp.163-172, 2020. Available From: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966>
- [19] J. Y. Kim, H. S.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of elderly women in rural areas depending on their participation in swimming activ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2, pp.64-72, 2021.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2.064>
- [20] I. M. Lopez-Medina, C. Alvarez-Nieto, J. Grose, A. Elsbernd, N. Huss, et. al, "Competencies on environmental health and pedagogical approaches in the nursing curriculum: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37, pp.1-8, 2019.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9.04.004>
- [21] E. W. Nam, B. H. Yoo, S. NODA, J. Kobayashi, C. W. Shon, "Analysis of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 services and the direction of community care in Seoul and Japan using capacity mapping tool", *Seoul Studies*, Vol.21, No.2, pp.113-126, 2020.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
- [22] Y. R. Han, "Community care and nurse care coordinator",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3, No.3, pp.311-325, 2019.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9.33.3.311>
- [23] S. M. Cheon, "Experience of reorganizing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chronic disease: With three Asian countries at the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15-26,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15>
- [24] J. Y. Park, C. H. Woo,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48-56,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48>



김 주 연(Ju-Yen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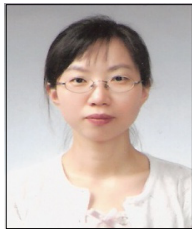
〈관심분야〉

성인간호, 임상실습, 노인간호

---

김 계 하(Kye-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성인간호, 건강증진